(752)

조선

주체108
(2019) 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인민무력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무력성에 도착하시자 인민군장병들은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무력성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강철의 신념과 의지,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의 건군업적, 부국강병의 거대한 업적을 빛내이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인민무력성회의실에서 인민무력성 장령, 군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맞는 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뜻깊은 건군절을 맞는 전군의 사랑하는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조국과 혁명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분투하고 또 분투하며 조선인민의 전인미답의 영웅적 창조투쟁을 강위력한 총대로 튼튼히 담보하고 조국의 미래를 보란듯이 개척해나갈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한 혁명무력의 공헌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투쟁사와 건군사에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력사적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군을 당과 혈맥이 통하고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운명공동체로 만들데 대하여, 군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심도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앞에 맡겨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실현

차　　례

표지: 세계를 놀래운 대학생들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사진 한 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을 축하방문하시고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8(2019)년 2월

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로정도를 만들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고 하시면서 전군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력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최정예혁명강군답게 조국보위와 평화수호의 억센 기둥,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글 김미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에 즈음하여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1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인민군 전체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흠모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쳐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무적의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면서 조선인민군창건 71돐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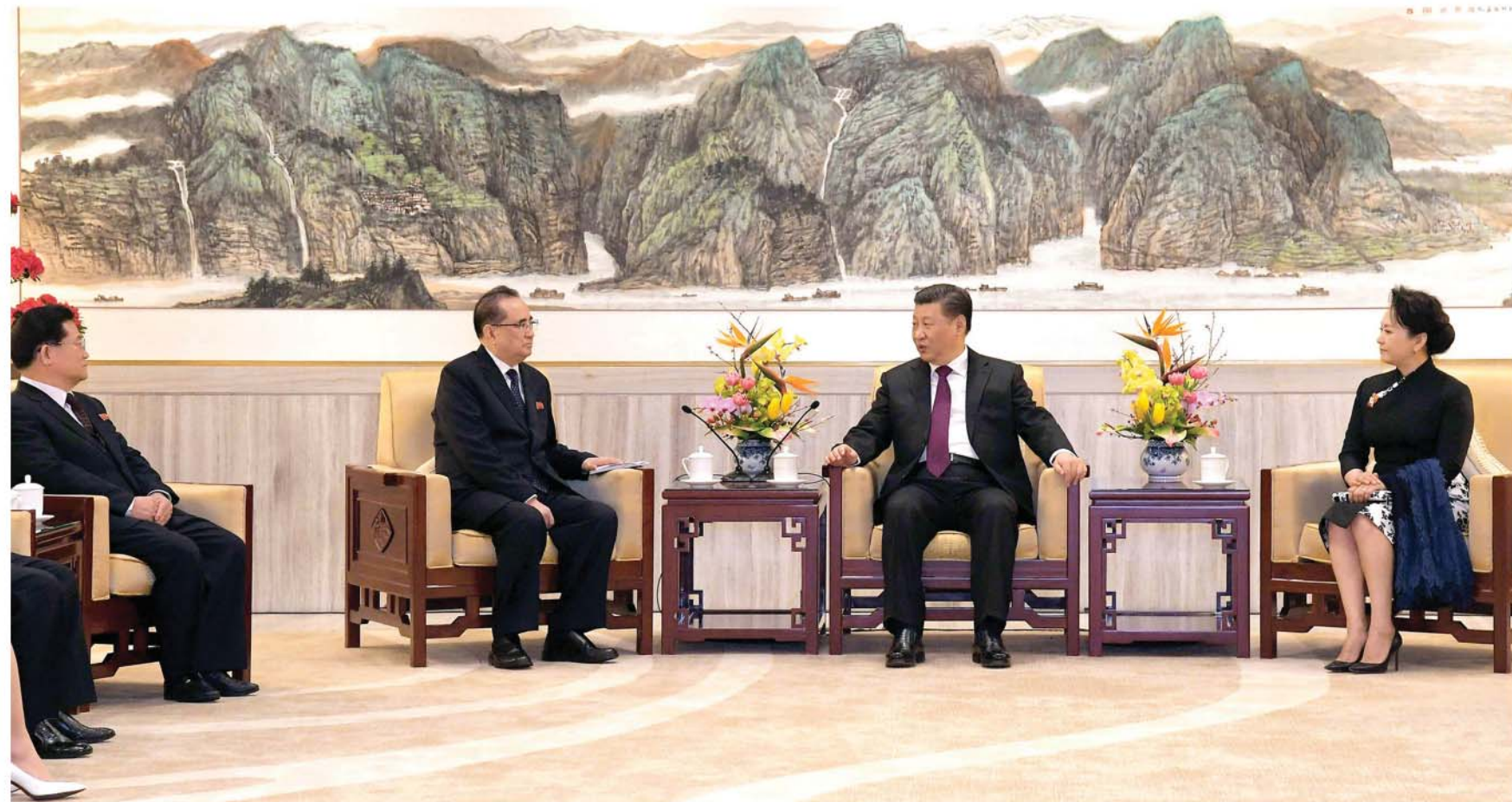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과시하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굴함없이 전진해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뜨겁게 굽이친 공연은 장중하고도 풍만한 정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글 최성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건군절 71돐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팽려원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친선단결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펼쳐놓은 공연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공연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주요성원들을 접견하고 담화를 나누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이 지난 1월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의 국경역인 단동역에 들어선 때로부터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친선예술대표단은 24일 오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이 중국당과 정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26일부터 베이징의 국가대극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팽려원녀사와 함께 27일 국가대극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과 상봉하고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당과 정부의 간부들, 예술인들, 베이징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서곡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두 나라 인민들이 영웅적인 창조와 투쟁의 년대들에 애창하였던 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음악, 무용작품들이 올랐다.

세기를 이어 두 나라 강산을 진감시킨 친선단결의 노래가 울리는 속에 조중친선의 위대한 려정에서 뜻과 정을 함께 나누어온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동지들과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상봉하시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열광의 박수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종목들에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떨치며 전진해나가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상과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람홍색공화국기와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할 조선인민의 사상정서적 감정을 힘있게 구가한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국기》는 숭엄하고 열정에 찬 형상으로 하여 관중의 심금을 울리였으며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강렬한 의지가 반영된 《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전진가》를 비롯한 노래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의 우정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중국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져있는 조선의 대표적인 민요를 민족적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색채가 짙은 신비한 음색과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형상한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과 솟구치는 청춘의 활력을 한껏 터친 타프춤 《청춘시절》은 장내에 열정과 환희의 세계를 펼치며 관람자들의 감흥을 자아냈다.

무대에는 녀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강의 노래》와 새 중국의 자랑찬 70년력사와 더불어 중화민족의 부흥의 년대들에 울려퍼진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사회주의 좋다》에 이어 중국의 유구한 력사와 중국인민의 애국적감정, 랑만을 반영한 여러 노래들이 울려퍼져 관람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친선과 단결의 서사시를 더욱 아름답게 써나가려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기백있고 참신한 형상으로 보여주고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융합시키며 시종 대절찬을 받은 공연은 중국노래 《오늘 밤을 잊지 못하리》로 막을 내리였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공연은 28일까지 계속되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훌륭하게 각색된 가극 《홍루몽》의 관람열풍이 세차게 일었던 국가대극원은 조선의 예술사절들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모여온 관람자들로 련일 흥성이였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전하고 격정에 넘쳐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또 보내였다.

관중들은 공연의 특출한 예술적감화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중조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예술대표단은 체류기간 중국예술인들의 공연들도 보았으며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2019년의 첫 친선사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공연은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한 조중문화예술교류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두 나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킨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글 김 필

관중들은 공연의 특출한 예술적감화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전력증산으로 들끓는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기업소의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발전설비들의 개건현대화를 다그쳐 더 높은 생산실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이 년초부터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다.

청년직장과 3, 4, 5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점검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이라와 발전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실적을 계속 올리고있다.

자력갱생직장, 소재직장들에서 설비보수에 쓰이는 각종 자재 및 소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보수부문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 및 중보수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공업기술연구소와 전기시험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기술자들도 새로 증설된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다른 발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기술혁신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안고 마련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련합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전력생산성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영조

련합기업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그 효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룡성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드높이 올해 정초부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또다시 창조하기 위한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재보장과 설비 및 기술관리, 교차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2. 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단천발전소건설장 등에 보내줄 대상설비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선군주철공장과 1, 2주강직장을 비롯한 소재생산부문에서 전기로, 유도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대상설비들의 본체소재를 비롯한 각종 소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1기계직장과 대형공작기계직장을 비롯한 가공부문의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받아들이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각종 대상설비들의 가공과 조립속도를 높이고있다.

지난해 새형의 압축기를 개발한 선군압축기직장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압축기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집단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과학연구단위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과 새 제품개발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면서 생산활성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있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 기계설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련합기업소의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병훈

조선의 명산 – 금강산

백두대산줄기의 중부에 위치하고있으면서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의 넓은 지역과 통천군의 일부를 포괄하고있는 금강산은 조선의 6대 명산중의 하나이다.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 갖추고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루고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암들, 거대한 층암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도처에 이루어진 수많은 담소, 못들과 폭포들, 울창한 록음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금강산의 경치는 볼수록 장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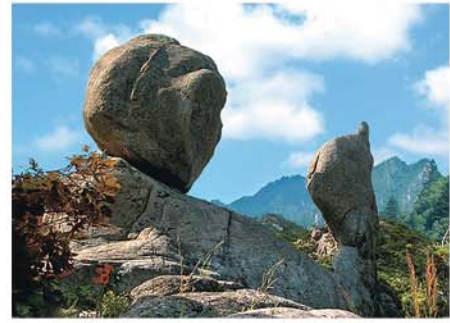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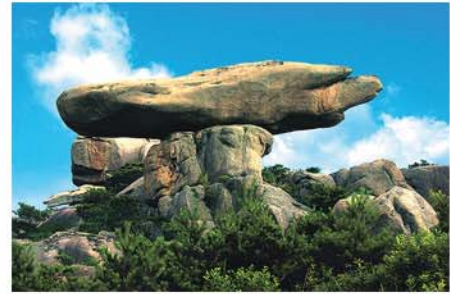
하여 예로부터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고 물이 천가지 재롱을 피우며 나무 또한 기특하니 천하절승이 여기 다 모인것 같다》, 《금강산을 보기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전해져오고있다. 자기의 고유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는 금강산지구에는 1 200여종의 식물과 250여종의 척추동물이 서식하고있다.

이 지구에는 계급사회초기의 옛무덤들로부터 중세기의 산성, 건물, 탑, 비, 불상조각, 금속공예품, 나무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학술적의의가 크며 아름다운 풍치를 돋구는것으로 하여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희귀하고 진귀한 동식물들과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 자연굴, 폭포, 온천, 호수들도 있다.

사진 리민천, 김진호, 리성일, 변찬우
글 최의림

금강산의 사계절

삼선암

별금강의 기암

천불동의 기암

동석동의 배바위

수정봉의 기암

상팔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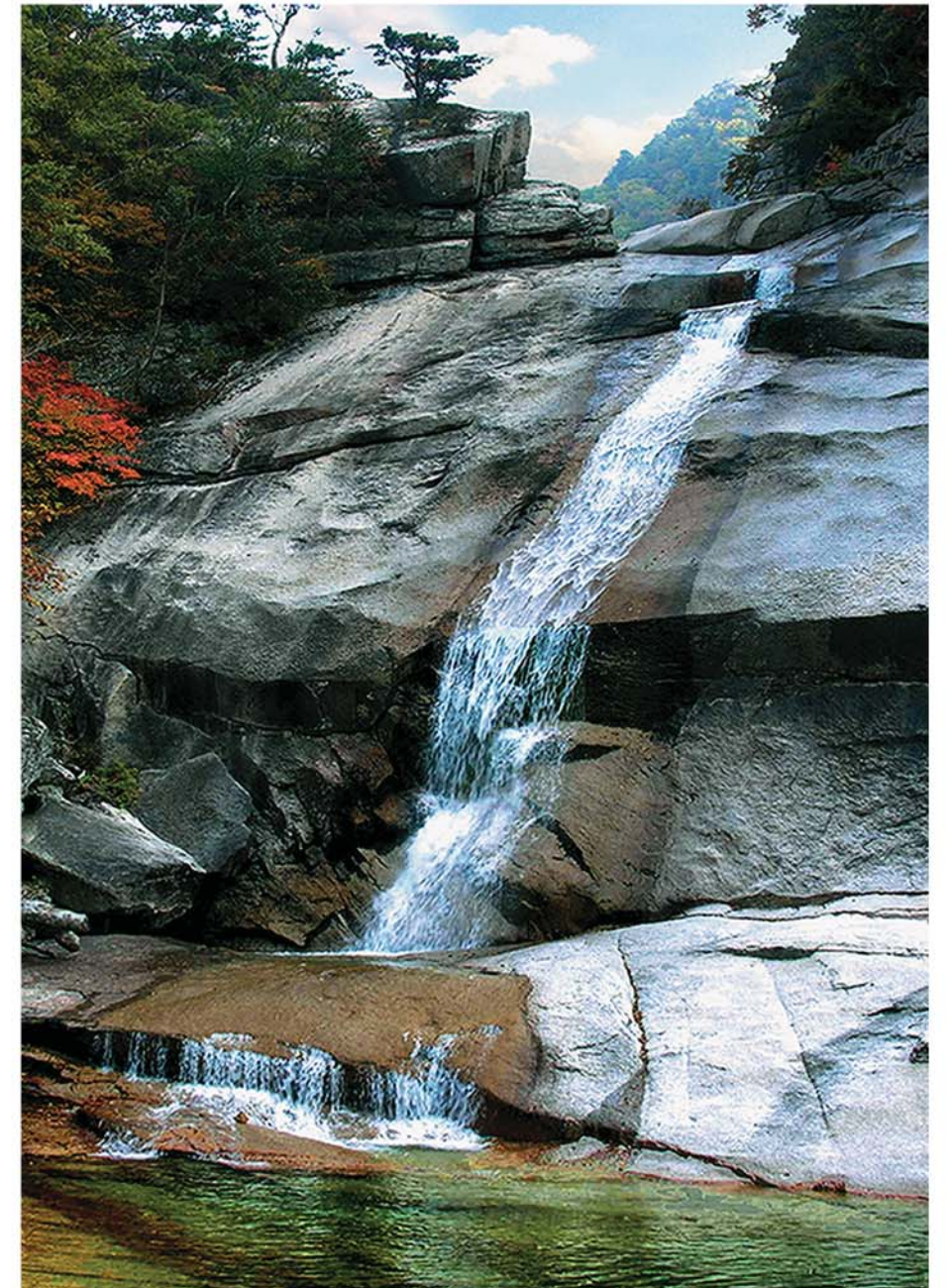
별금강

구천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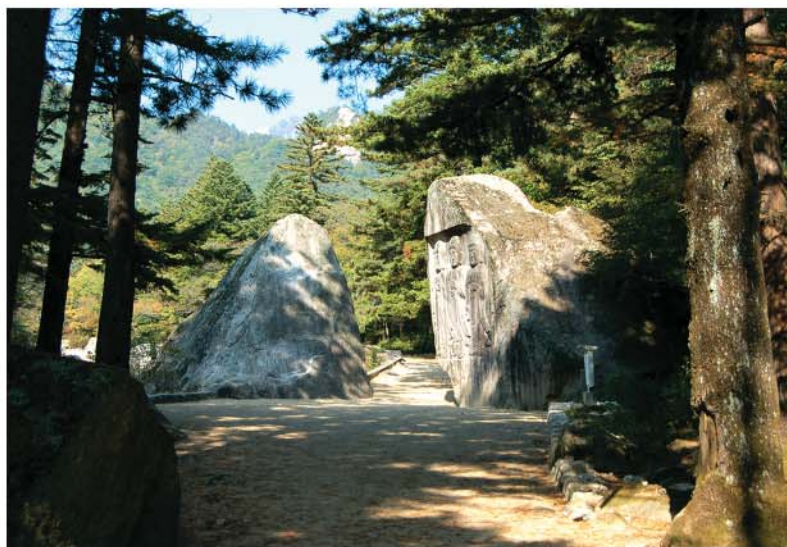
옥영폭포

삼일포

해금강

총석정

금강산지구에는 수많은 유적유물들이 있다.

금강산지구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일부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계획 국제조정리사회 제30차 회의에서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였다.

누구나 찾는 과학기술전당

대동강의 쑥섬에 자리잡고있는 과학기술전당으로 날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의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훌륭히 갖춘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거점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로인들, 장애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콤퓨터들을 마주하고 진지한 탐구와 사색속에 시간의 흐름을 잊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인 김충혁은 이곳에 구축된 자료열람봉사체계가 자신의 학위론문완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였다고 하였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3학년생이라는 평양화장품공장의 로동자는 학습과 생산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곳의 학술문답실을 통해 해결하면서부터 직장동무들속에서 로동자발명가, 척척박사로 불리운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보급망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전국각지의 대학, 과학연구기관들과 도과학기술도서관, 미래원, 과학기술보급실들에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신속히 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로씨야의 한 인사는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이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뿐아니라 과학의 세계에 저도모르게 심취되게 하는 신비한 곳이다, 많은 나라들에 현대적인 도서관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남녀로소 누구나 와서 과학기술을 습득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사진 홍광남, 글 강수정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와 4개의 컵을 받았으며 2명의 선수들에게는 국제기억대가상이 수여되였다.

세계지력경기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대학생들

지난해 12월 중국 홍콩에서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8개 나라와 지역의 2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에서는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인 방은심, 리성미, 김수림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선수들을 성인급, 로인급, 소년급 등 4개의 부류로 가르고 매 선수들이 각각 10개의 항목을 놓고 경기를 진행하여 매 항목에서 받은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메달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그 점수들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모두 7개의 금메달과 7개의 은메달, 5개의 동메달을 쟁취한 조선선수들은 4개의 새 기록을 세우고 4개의 컵도 받았다.

특히 방은심은 성인급에서 1등, 리성미는 소년급에서 3등을 하고 국제기억대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세계기억경기협회 회장은 조선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선수들의 성과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고 하였다.

전체 선수참가자의 1. 12%도 안되는, 더우기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3명의 조선선수들이 이번 선수권대회 총 메달수의 15. 8%와 세계기록돌파건수의 44%를 차지하였으니 외국의 선수들과 지도교원들, 심사원들도 한결같이 부러움과 경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처녀대학생들이 거둔 성과가 필연적인것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다 알수 없었다.

이번 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김형직사범대학 실장 차영호는 세계적인 기억강자들이 세운 기록을 돌파할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아내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제자들을 키워내려는 그의 높은 리상과 탐구력은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새 편상기억방법을 체계화하는 성과를 낳았고 나날이 높아지는 학생들의 실력으로 이어졌던것이다.

학생들의 열의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던 나날속에 휴식일이라는 생각을 감감 잊고 보낸 일요일과 명절날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그들이다.

하여 마침내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것과 함께 자기 대학의 이름도 빛내이게 되였다.

사진 리룡운, 글 최광호

방은심

리성미

김수림

방직공들의 일터

동평양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종업원들의 대다수는 녀성들이다.

과일나무들을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도처에 휴식터들이 꾸려져있는 공장구내는 하나의 커다란 공원을 방불케 한다.

방적종합직장과 직포종합직장, 편직사직장을 비롯하여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생산현장들에서 녀성근로자들은 즐겁고 랑만적인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생산단위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는 2개의 탁아소들과 유치원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그들의 자식들을 볼수 있다.

하루의 로동을 마치고나면 문화후생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평방원과 규모있게 꾸려진 체육장들 그리고 문화회관의 무대가 어서 오라 녀성종업원들을 부른다.

특히 주체103(2014)년 나라에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으로 일떠세워준 로동자합숙에서 처녀로동자들의 행복에 겨운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생활상편의와 함께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는 합숙은 그들의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그들은 미용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에서 용모를 가꾸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도서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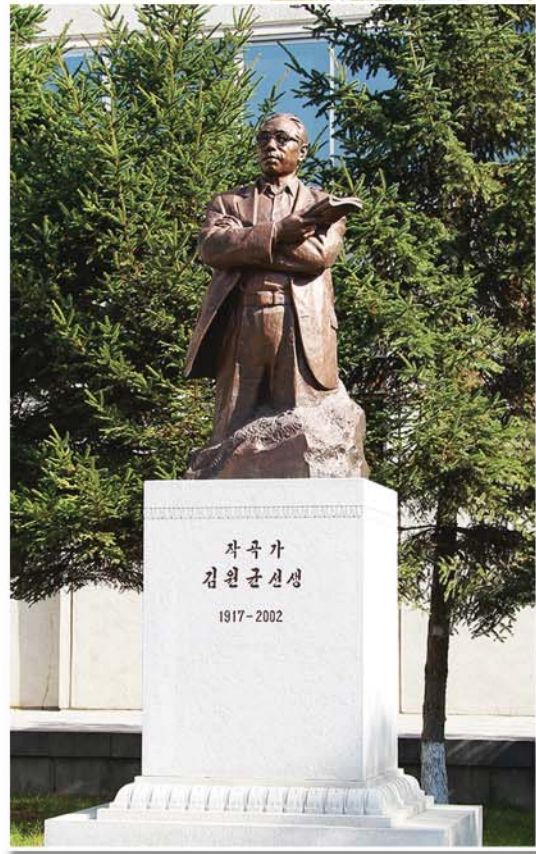
그들은 또한 집기류와 주방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료리실습장에서 자기들의 음식솜씨를 발휘하기도 한다.

식사시간이면 이곳은 제손으로 만든 갖가지 음식들을 놓고 저마끔 청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한다.

그 처녀들은 매일 새로운 혁신을 다짐하며 합숙문을 나서고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안고 이곳으로 들어선다.

그들과 함께 공장의 모든 녀성근로자들이 공장의 주인으로 된 궁지를 간직하고 일터마다에서 서로돕고 이끌면서 혁신자의 자랑을 떨쳐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로동조건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진 일터에서 즐겁고 랑만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녀성종업원들

작곡가 김원균선생의 조각상

70년의 년륜을 새겨온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주체38(1949)년 3월 1일에 창립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은 조선의 음악예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다.

70년의 년륜속에 음악교육부문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기지로 강화발전된 대학에는 성악학부, 민족기악학부, 양악기악학부, 작곡학부, 피아노학부, 악기제작학부, 원격교육학부 등과 박사원이 있다.

그리고 조선민족음악연구소와 2관편성의 대학관현악단도 있다.

또한 음악기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평양제1음악학원과 대중가요가수, 전자악기연주가양성을 위주로 하는 평양제2음악학원이 대학에 부속되여있다.

주체95(2006)년 대학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대학의 기본교사에는 집체교실들과 함께 작곡학부, 조선민족음악연구소 등이 있으며 2개의 호동으로 된 전공학과교사에는 수백개의 개별

수업실들과 60석, 83석, 300석규모의 강당들, 체육실이 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대학의 음악당에서는 국제 및 국내의 예술축전들이 진행되기도 한다.

풍부한 무대 및 교수경험을 가진 교원진영은 대학의 긍지와 자랑으로 되고있다.

학생모집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전공부문 교원들이 직접 전국각지에 나가 학생들을 선발하는것이 원칙의 하나로 되고있다.

개별교수제를 강화하고있는 대학에서는 매 학생이 가지고있는 우결함을 전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적용하고있다.

대학을 나온 많은 졸업생들이 공훈국가합창단, 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주요예술단체들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있다.

주체예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의 빛나는 연혁을 새겨온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은 조선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최명진, 글 문진유

과학토론회를 진행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연구사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은 대학안의 여러 핵심기초기술부문 연구집단들을 통합하여 지적 및 물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첨단산업분야들을 창설하고 나라의 경제구조를 지식경제형으로 전환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할 목적으로 주체103(2014)년에 조직된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기지이다.

연구원은 산하에 정보기술연구소, 나노기술연구소, 생물산업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분석연구소, 통신산업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들과 직속연구실을 두고있다.

연구원에서는 지금 각 연구소들에서 장악하고 발전시키고있는 독점기술들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동을 더욱 짜고드는것과 함께 단과대학, 학부들과의 유기적인 련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연구활동을 진행하여 여기에 인입된 박사원생들과 학생들의 과학리론적자질과 실천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정보기술연구소와 생물산업연구소, 나노기술연구소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지향시킴으로써 최근년간에만도 해당 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여러 첨단기술 및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분석연구소에서 새 분석방법들에 기초하여 개발한 10여종의 상용분석설비들과 장치들은 지금 전국의 식료 및 제약공장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였으며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아 명제품, 명상품생산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전자재료연구소와 과학실험기구연구소, 통신산업연구소들에서도 새로운 재료와 기술, 설비들을 개발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은 나날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강수정

연구소들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은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적극 추동하였다.

언제나 흥성이는 평양시체육촌

지난해 풍치수려한 보통강의 모도에 새로 일떠선 평양시체육촌이 수도시민들과 체육인들의 다채로운 체육활동으로 더욱 흥성이고있다.

총부지면적이 71 500여㎡인 체육촌은 체육관과 체육인숙소, 야외훈련장을 비롯한 여러개의 대상들로 이루어져있다.

보통강을 가로 질러 새로 건설한 다리를 건느면 락하산모양을 이루고있는 체육관이 먼저 한눈에 안겨온다.

3층건물인 이곳에는 수백석의 관람석을 가진 롱구경기장과 육체훈련장, 씨름훈련장, 탁구장, 장기와 바둑을 할수 있는 체육오락실이 꾸려져있다.

2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4층으로 되여있는 체육인숙소에는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방들과 함께 상점과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과 도서실, 오락실 등이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숙소의 맨 웃층에는 체육인들이 국가망 등을 통하여 현대체육발전추세를 잘 알고 전문분야의 체육기술을 습득할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보급실도 있다.

3만여㎡의 부지면적에 시원스레 펼쳐진 야외훈련장에서는 1 500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경기장과 롱구장, 배구장, 정구장, 바드민톤장들이 구색을 맞추고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른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수림화, 원림화가 실현된 체육촌의 풍치는 주변의 강물우에 떠있는 수상화초공원과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사진 김윤혁, 리진혁, 글 문광봉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체육관에는 롱구경기장과 탁구장, 육체훈련장 등이 꾸려져있다.

체육인숙소에 꾸려져있는 과학기술보급실과 편의봉사시설들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들

박미향 김금정 김남수 함수경 김일화 김향심 김은화 왕명국 리성훈 림위석

소녀의 꿈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8》에서는 크레용화 《왕사과》가 참관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진 속에서 아름이 벌게 큰 사과를 부둥켜 안았다가 주저앉으려는 남학생과 그 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녀학생을 재미나게 형상한 작품이였다.

전시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이 작품은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의 박혜연학생이 그린것이다.

혜연에게 3살때부터 음악공부를 시켰던 부모들은 그가 그림그리기를 더 즐겨하는것을 한갖 장난으로만 여기였다.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하였는데 가문에 없었던 미술가가 나올리 만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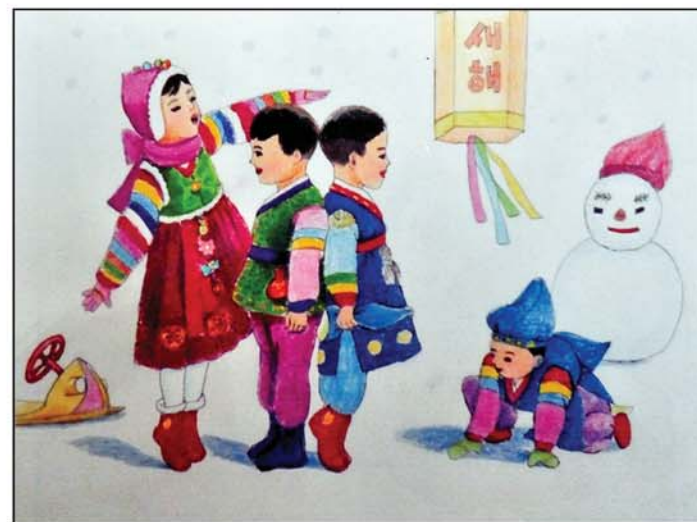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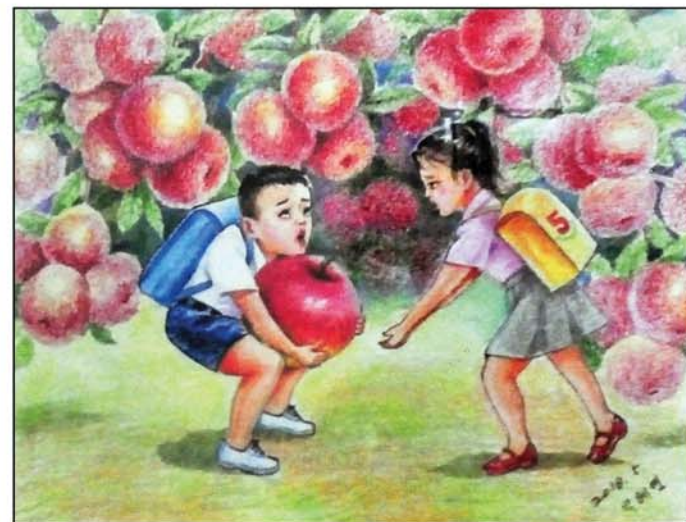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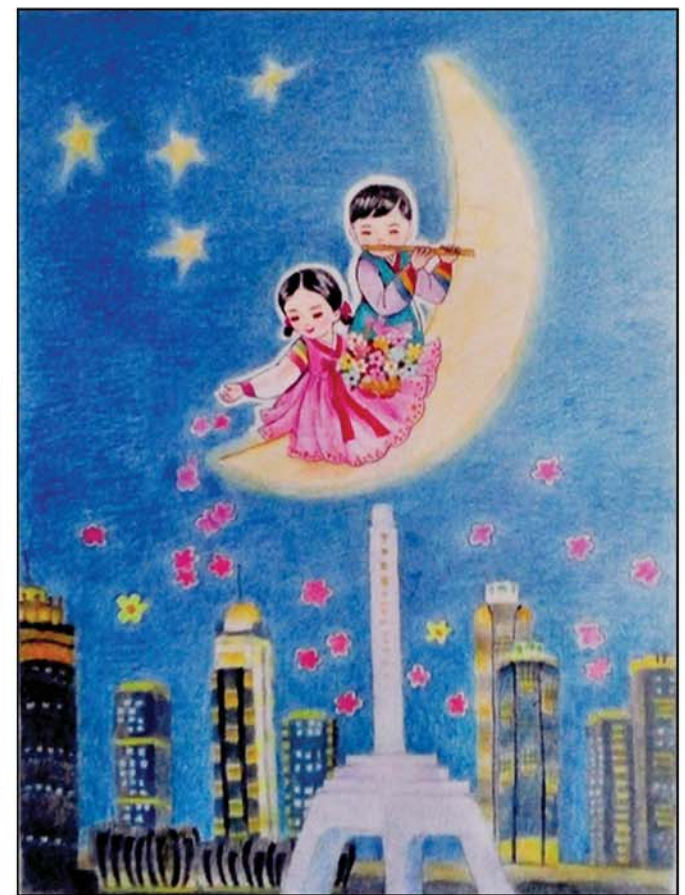
그의 재능을 계발시켜준것은 중구역 련화소학교의 박향심담임교원을 비롯한 교육자들이였다. 하여 혜연이는 소학교 2학년때부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년후인 주체106(2017)년에는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제26차 국제아동그림전람회에 자기의 작품들인 크레용화 《명절의 아침》, 《려명거리의 황홀경》 등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진행된 광명성절경축 제7차 전국소묘축전에서도 《첫 등교의 기쁨》이라는 작품을 입선시켜 금메달을 받았다.

부모도 몰랐던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하게 자래워주는 교육자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박혜연학생의 미술실력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글 리명국

박혜연이 제26차 국제아동그림전람회에서 받은 상장

박혜연이 창작한 작품들의 일부

민족의 자주정신을 과시한 3. 1인민봉기

올해 3월 1일은 조선민족의 반침략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3. 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0돐이 되는 날이다.

1905년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로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온 삼천리강토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무단통치하에서 상가집개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받아오던 조선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거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주체8(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는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장대재(현재의 평양학생소년궁전위치)에 있는 숭덕녀학교의 운동장에 모여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리였다.

시위대렬이 거리에 나오자 수만명의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경성(서울)에서도 지방에서 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명의 군중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헌병과 경찰뿐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하여 총을 쏘고 칼로 찌르면서 탄압하는 침략자들에 의해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대렬이 앞장에 나서면서 결사적인 시위를 벌리였다.

평양과 경성(서울)에서 시작된 봉기는 삽시에 전국의 13개 도를 휩쓸고 중국의 만주, 상해, 로씨야의 연해주, 미국의 하와이 등 해외에까지 파급되여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화했다.

당시 민족적량심을 간직한 조선사람들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봉기에 참가하였다.

주체8(1919)년 3월초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200여만명이 참가한 1 542차례의 반일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으며 이해말까지 전국 232개의 부, 군 가운데서 229개 부, 군들에서 도합 300여만명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조선인민의 거세찬 투쟁기세에 질겁한 일제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강점 륙해군무력과 헌병, 경찰을 총동원하다못해 자기 나라 본토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천인공노할 인간살륙만행에로 내몰았다.

일제침략자들은 전국도처에서 적수공권의 시위대렬들에 총포사격을 가하였을뿐아니라 무고한 조선사람들까지 마구 체포, 학살하고 마을들을 불태웠다.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동안에만도 무고한 조선사람 7 500여명이 학살되고 1만 5 9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착스러웠던지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도 《체포된자는 남자 3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사망한자는 남자 1만명이상, 녀자 300명, 부상자는 남자 5만명이상, 녀자 1 000명, 소아사망자는 300명이상》이라고 기록되여있다.

3. 1인민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조선민족은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를 지닌 민족임을 전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한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그를 부정하면서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더우기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과거사를 로골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족이 100년전에 떨쳤던 자주정신은 오늘 더욱 백배해졌으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고죄악을 사무치게 새기고있는 조선인민은 분노에 찬 눈길로 섬나라 일본을 주시하고있다는것을.

글 박영조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에 항거하여 떨쳐나선 3. 1인민봉기시위자들

1000 KOREANS SLAIN

San Francisco Chronicle

Bolshevism May Sweep Germany, Says U

WOMAN SLAIN, THROWN IN GULCH, KOREA ASSERTS INDEPENDENCE

San Francisco Examiner

KOREAN UPRISING AN UNARMED REVOLUTION

California Publisher Brings First Uncensored News of Revolt

3. 1인민봉기소식을 실은 외국신문들

넌꿋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신재철　13606-19804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백두산에 봄이 온다.　사진 홍 훈